

가. 국내외 시장중심의 기술이전·사업화 인프라 강화

□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치 메이킹 지원 강화

- 기술사업화정보망(NTB)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술이전을 제고
 - *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중심으로 정보망 개편 및 설명회 등 홍보강화
 - * 전문가(변리사, 기술거래사 등)를 활용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 이전 상담 및 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실적 제고
-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기업 관련 협·단체와 공동으로 수요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, 이들 기관에 NTB 우수기술을 주기적으로 제공
- 시장 접근법 기반의 기술평가 개선 및 보급
 - * 사례정보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
 - * 평가시스템 구축에 의한 평가모형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

□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조직 간 연계·협력 활성화

- 참여주체간의 융합 및 소통을 위한 기술사업화협의회(TBA, Tech-Biz Association) 운영활성화
 - * 업계 단체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분과위원회 운영정례화
- 공공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TLO 지원프로그램 운영
 - * 선도 TLO(9개)의 자립화 유도 및 후발 TLO(5개)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
- 기술거래기관 위주의 협력관계에서 기술수요·공급 기업 간 참여·협력 활성화 및 RTTC 역할 재정립
 - * 기존 기술거래위주 역할 →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역할

□ 기술사업화 민간 부문 전문 인력 양성

- 기술경영(MOT)인력 양성, 우수 기업 발굴포상을 통한 저변 확대 및 기술경영 모범사례 확산
- 민간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이전·사업화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
 - * 맞춤형 전문코디 양성과정 및 글로벌협력과정 내실화 추진

나. 공공R&D 기술성과의 민간 사업화연계 촉진

□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펀드 투자 활성화

- 정부 R&D 성공과제와 우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
 - * R&D 성과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가 부족한 “기술사업화의 Death Valley 영역”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 조성 추진
 - * 월드클래스300, 정부 R&D 성공기업 등 우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협력 연계 강화
- 신성장동력펀드 투자효율화 및 민간금융연계를 통한 시장중심의 기술금융 생태계 마련
 - * 투자집행 부진 등 시장수요 대응이 미흡한 펀드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
 - * R&D Loan 등 민간기술금융 연계 및 Secondary 펀드 등 시장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 모델 개발

□ 사업화 연계 유망과제 지원 강화

- 글로벌시장을 창출·선점할 수 있는 창의·개방형 R&BD 과제의 BM기획 및 사업화 과정 중점지원
 - * R&D 3.0 기반 사업계획양식 및 프로세스 적용으로 시장친화적 과제 지원
- 중소기업에 이전한 공공R&D결과물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수요기업 중심으로 개선 운영
 - * 현행 출연연·대학 주도의 기관연계형 R&BD를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형 지원 사업으로 개선

□ 녹색 인증기술(제품)의 사업화 촉진 지원

- 녹색인증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방안 마련
 - * 정책발굴포럼 운영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(예: 유망녹색기술 사업화 지원)
- 타 부처 시책과 연계하여 녹색인증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
 - * 조달청 나라장터에 녹색기술제품 전용 쇼핑몰 개설 추진
 - * 서울시 녹색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등 유관 사업과 연계 지원
-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조기 정착 도모
 - * 녹색기술제품 제도 시행('12.12) 이후 홍보 및 운영모니터링 강화

다. 글로벌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

□ 지식재산(IP) 비즈니스 기반 조성

- IP Incubation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IP를 활용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필요한 IP Pool 구축 및 IP 수익화사업 추진 지원
 - * 전략과제별 25개 IP Pool 구축을 위한 IP 890건 확보('13년 1,200건 추가 예정)
- 국내 IP비즈니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및 해외 IP 협력 네트워크 확대

□ 기술신탁 및 기부채납 제도 활성화

- 기술신탁·기부채납 제도를 통해 산·학·연의 미활용 국가기술 자산의 활용 촉진
 - 기술이전 가능성 중심의 신탁기술의 선별을 강화하고 특허패키징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이전율 제고